

말뭉치 분석을 통한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양상 분석

-특정성, 개별성 의미의 반영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Usage Patterns of the Genitive Case Marker ‘ui’ through Corpus Analysis

-Focusing on Specificity and Individuality-

김 혜 진
(Kim Hyej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2-1, 1-3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ults of a corpus-based descriptive analysis to help Korean language learners understand the usage patterns of the genitive case marker ‘ui’(similar to ‘of’ in English, for example). To this end, the study focused on the semantic features of specificity and individuality, which influence the combination of ‘ui’,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meanings and the use or omission of ‘ui’. For this purpose, a corpus consisting of approximately 90,000 morphemes was analyzed. As a result, in ‘N1 ui N2’ constructions, the frequency of ‘ui’ tends to increase when ‘ui’ expresses specificity and when N1, as a plural entity, conveys individuality. Conversely, when N1 is expressed as an attribute or is mentioned collectively, the frequency of ‘ui’ usage tends to decrease. Additionally, although general tendencies were observed, numerous exceptions to these patterns occurred, so the tendencies of ‘ui’ usage were presented through ratios. This study provides both semantic and quantitative insights into the usage patterns of ‘ui’, offering a valuable reference for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authentic linguistic data.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제어: 관형격조사(Genitive case marker), 의(ui), 말뭉치(Corpus), 특정성(Specificity), 개별성(Individuality)

1. 서론

1.1. 들어가기

본 연구의 목적은 관형격조사 ‘의’가 사용되는 이유를 말뭉치 분석의 과정을 통해 보이고, 이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의’는 일반적으로 ‘N1의 N2’ 의미가 ‘소유주-피소유주’ 관계일 때 그리고 ‘전체-부분’ 관계일 때 비교적 생략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156). 그러나 예외가 많고 때로는 같은 ‘의’ 명사구라 하더라도 의미 유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혼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예컨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말뭉치에서 추출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라는 표현에서 ‘N1의 N2’에 해당하는 ‘저마다의 다양한 규칙’의 의미 관계는, ‘저마다’를 ‘규칙’의 소유주로 이해한다면 ‘소유주-소유물’로 볼 수도 있고, ‘저마다’를 모두 다룰 수 있는 ‘다양한’의 속성으로 해석한다면 후행 명사 ‘규칙’과 ‘속성-대상’의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다.¹⁾ 또한 이때 ‘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화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위 문장에서 ‘의’를 생략해도 비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의’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N1과 N2 사이의 의미 관계에 앞서, 품사와 같은 N1의 유형별로 ‘의’ 자체가 갖는 의미 특성을 교육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의 사용을 말뭉치로 분석한 이유는, 대부분의 문법 표현들은 규칙성뿐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사용이 나타나며, 이러한 표현들의 이유를 함께 이해할 때에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김서형 외 역, Larsen-Freeman, 2012:83). 말뭉치는 언어의 모습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 언어 텍스트를 모은 것이며, 따라서 여러 언어 현상을 살펴보고 기술적으로(descriptive)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권혁승·정채관, 2012:1). 관형격조사 ‘의’에 관해서도 이러한 말뭉치 분석으로 더욱 다양한 예시와

1) ‘소유주-소유물’, ‘속성-대상’의 관계는 ‘의’의 의미 관계를 세분하여 예시한 김창섭(2008)의 구분을 참조하였다.

예외적 현상들의 이해에 관한 교육 내용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의’의 특성으로는 한정한(2012)에서 제시한 특정성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말뭉치에서 ‘의’ 구문을 검토해 본 결과 특정성(specificity)의 의미가 표현되고, N1이 복수일 때는 개별성(individuality)이 반영되어 특정적으로 사용될 때 ‘의’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용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보이기 위해 ‘의’의 생략과 사용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1.2. 분석 대상 자료

분석 대상 자료로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중 형태분석 말뭉치와 구문분석 말뭉치가 모두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으며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격식 문어 총 30,076개: 동아일보 기사 10,018개, 조선일보 기사 10,019개, 한겨레 기사 10,039개
- 격식 구어 총 30,051개: EBS 정오뉴스 10,015개, 일송학술대회 종합토론 10,017개, EBS 초대석 10,019개
- 비격식 구어 총 30,105개: 2인 일상대화 30,105개
- 전체 총합: 90,232개

격식 문어 말뭉치로 사용한 신문 말뭉치는 구어 인터뷰가 “ ” 안에 직접 옮겨진 문장들을 모두 제외하여 최대한 단일한 문어적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의’ 명사구는 위 자료에서 특정성, 개별성이 비교적 분명히 파악되는 ‘N1의 N2’ 표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²⁾ 개수는 전체 ‘의’ 표현의 약 43%인 399개이다.³⁾ 한편 ‘의’의 형태는 ‘모두의 말뭉

2) ‘의’의 사용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여되는데 예를 들어 김광해(1981), 변정민(2008) 등에서는 ‘의’의 끊어 읽기 기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 구로구청과 개봉2동 주민센터의 노력이 있다.’에서 ‘의’가 사용된 이유에는 특정성 외에도 ‘의’에서 한 번 끊어 읽음으로써 긴 문장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같은 다양한 표현 중 최대한 ‘의’의 특정성, 개별성을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한 어휘군 및 N1의 품사 부류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3) 하나의 ‘의’ 표현이 두 개 이상의 영역에 포함된 항목은 중복 합산하였다. 예를

치’에서 구어의 발음 특성을 반영해 ‘의, 에’ 모두로 표기하여 본 연구도 예문 제시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의’의 특정성, 개별성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텍스트 유형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텍스트 유형별로 분석 대상 자료를 구축하였으나 이는 주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균형적으로 자료를 구성하기 위함이었으며, 비격식 구어에서는 ‘의’가 총 13회 추출되어 분석 대상 항목의 수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빈도에는 특정성, 개별성 외의 다양한 요인이 관여되기도 하였다. 이에 텍스트 유형에 대해서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일부 표현에 나타난 특징을 간략히 알아보는 정도로 살펴보았다.

1.3. 선행 연구

관형격조사 ‘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N1의 N2’에서 ‘의’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통해 ‘의’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가 많았다. 김광해(1981)는 ‘의’의 사용과 미사용의 현상을 분석하여 통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로써 ‘의’는 각 명사 간 항목 연결성 및 종속적 연결의 통사 기능이 관여된다고 하였다. 변정민(2008)은 ‘의’의 분포에 기반해 선·후행 성분의 형태 및 의미 관계에 따른 특징을 제시하면서 ‘의’는 후행 성분을 한정하며, 연결된 두 명사를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이게 한다고 하였다(변정민, 2008:527-528). 한정환(2012)은 ‘의’가 의미적으로는 특정성을 갖고, 통사적으로는 종속적 연결 기능을 하는 것을 이중 주어문과의 교체 현상을 통해 보여 주었다. 목정수(2007)는 ‘의’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 ‘의’가 형태론적으로 한정조사(determiner/article)라 하는 것이 관형격조사보다 더 적합한 명칭일 것이라 하였으며 통사적으로는 후행 명사와의 연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특정성의 의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Enc(1991)는 특정성의 뜻을

들어, ‘홍수자들의 탈출구’는 ‘들’에 후행하는 ‘의’, 그리고 ‘은유 표현’의 두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2회로 계수되었다. 중복된 수를 제외하면 393개이다.

정의하고 영어, 튀르키예어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하였다. Donnellan(1966)은 한정적 표현을 바탕으로 특정적 사용과 속성적 사용의 차이를 보였다. Partee(1972)는 지시(referential)와 관련된 특정성 및 속성적 사용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한편 N1이 복수의 개체일 경우에는 개별성이 나타날 때 특정적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백미현(2002)에서는 개별성을 비롯한 다양한 복수 의미들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전영철(2004)은 이러한 복수 표현들의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비교·대조하였다. 윤재학(2003)은 대명사 ‘우리’로 총칭성과 특정성(특칭성) 및 개별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위의 특정성, 개별성의 의미가 실제 언어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찰하고, 예외가 많을 때에는 ‘의’ 사용의 비율을 제시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2. 본론

2.1. 특정성과 개별성의 의미

2.1.1. 특정성의 의미와 한정성, 속성

특정성(specificity)은 화자가 어떤 지시체를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특정한 개체를 의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의미 특성이다(전영철, 2005:721, 한정환, 2012:45).⁴⁾ 즉, 이는 지시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러한 특정적 명사의 범주는 그 명사구가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할 때 작용역이 다른 명사구보다 큰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Heim, 1982:147; Enç, 1991:1).⁵⁾

4) 특정성이 주요한 ‘의’의 결합 조건이라는 것은 한정환(2012)에 따르면 다음의 현상으로도 뒷받침된다. 첫째, ‘의’는 비특정성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不定代名詞) ‘아무나’나 ‘누구나’와 결합하지 않는다. 둘째, 한정성을 나타내어 본유적으로 특정성을 함의하는 지시 대명사 등의 경우 관형어로 쓰이면 ‘의’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셋째, N1에 보조사나 부사격조사가 결합하여 그 작용역이 명사구에 한정되어 특정성을 나타내면, 이것이 관형어로 쓰일 때 ‘의’가 필수적으로 결합한다(한정환, 2012:46-48).

- 1) 모든 여성은 5학년의 어떤 아이와 이야기했다.

Every woman talked to a child in fifth grade. (Enç, 1991:1)

1)에서 ‘모든 여성’이 만약 ‘5학년의 한 아이’와 이야기했다면 ‘5학년의 어떤 아이’는 특정성을 갖는다. 이때 ‘5학년의 어떤 아이’는 화자가 마음속에 의도한 한 명의 아이를 지시하여 특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학년의 어떤 아이’의 작용역은 ‘모든 여성’ 전체를 포괄하므로 이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Enç, 1991:1).

그러나 위 ‘5학년의 어떤 아이’가 알 수 없는 5학년의 여러 아이들을 의미한다면 특정성을 갖지 않게 된다. 이때는 특정한 아이를 지시한 것이 아니며, 그 범주도 ‘모든 여성’을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이 특정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특정성은 영어에서는 ‘certain’과 같은 어휘로, 그리고 튀르키예어에서는 대격 표현으로 식별되기도 한다(Enç, 1991:4).

한편 특정성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 한정성(definiteness)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성에서 특정성과 차이를 보인다. 즉, 특정성은 범주적으로 포함 관계가 많지만 한정성은 동일 관계가 많다. 예를 들어 ‘다섯 명의 아이들이 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버스를 놓쳤다.’라는 문장에서 대명사 ‘그들’은 ‘다섯 명의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수에서 더 많거나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Enç, 1991:7). 따라서 ‘그들’은 한정적이며, 화자가 지시하는 표현이 명확하다는 측면에서는 특정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시 대명사는 본유적으로 한정적이며(백미현, 2002:4) 이에 특정성도 함께 나타나므로 관형어로 쓰일 경우 ‘의’의 생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⁶⁾

5) 이러한 범주적 개념은 특정성의 정의로 언급되기도 하고(Heim, 1982:147; Enç 1991:1) 제외되기도 한다. 예컨대 전영철(2005)은 범주적 개념을 특정성의 정의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정성을 나타내는 명사라 하더라도 한 운용자에 대한 다른 운용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작용역이 다른 어휘 대비 더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전영철 2005:719-720).

6) 한정적 표현의 경우 이를 특정적 표현과 속성적 표현으로 구분하여, 이 중 특정적 표현만이 특정성을 갖는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두 용법 모두를 특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Partee(1972)는 한정성 어휘의 속성적 표현은 불특정성을

이러한 특정적 지시 표현에 ‘의’의 사용이 요구되는 이유는, 특정적으로 연결되기 이전 N1과 N2는 각기 구별되는 독립적 성분이므로, 종속적 연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줄 어떤 언어적 표현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같은 명사라 하더라도 특정적으로 쓰였을 때에는 ‘의’가 결합되고 속성적으로 쓰였을 때에는 ‘의’가 불필요해지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속성은 어떤 것에 귀속되는 성질이지, 의미핵과 별도로 구별되는 지시체가 아니기 때문이다(한정환, 2012:54). 예컨대 ‘그 아이의 나무 의자’라고 했을 때 ‘나무’는 ‘의자’에 속성화된 재료를 의미하므로 ‘의’가 불필요하다. ‘나무’는 ‘의자’에 귀속되는 성질이지 별도로 구분되는 지시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별도의 개체로서 N2인 ‘나무 의자’와는 구별되므로 N2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진다.

이는 김광해(1981)에서 제시한 항목 연결성과도 관련된다. 김광해(1981)에 따르면 ‘N1의 N2’에서 ‘의’는 의미적으로 항목 연결성(collocability)을 나타내므로 N1과 N2 사이의 항목 연결성이 ‘의’ 없이도 파악될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⁷⁾ 예를 들면, N1이 ‘나무 의자’의 ‘나무’와 같이 ‘N2’인 ‘의자’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는 이것이 후행 명사에 귀속된 성질로서 사용된 것이므로 항목 연결성이 이미 높은 상태여서 ‘의’를 별도로 표시해 줄 필요가 없어진다.

2.1.2. 개별성과 특정성의 관계

N1이 복수일 때는 이 명사가 집단성을 나타내는지 개별성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의’의 사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집단성(collectivity)을 나타낼 때는 ‘의’의 결합 빈도가 낮아지고, 개별성(individuality)을 나타낼 때에는 특정성이 높아져 ‘의’의 결합 빈도도 증가한다.

개별성은 복수의 개체들을 각각의 개체들로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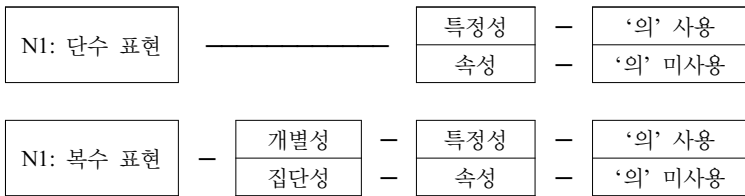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전영철(2005)은 이 유형 또한 화자가 마음 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특정적 표현이라고 하였다(전영철, 2005:720).

7) 이미 항목 연결성이 존재하여 ‘의’가 생략 가능한 의미 관계로는 ‘소유주-피소유물, 전체-부분, 친족 관계’를 들 수 있다(김광해, 1981:60).

의미하여 복수의 개체를 하나의 전체로서 인식하는 집단성에 대비된다(강범모, 2014:157). 예컨대 물질명사인 ‘물’에 ‘들’이 붙어 ‘물들’이라고 하면 이는 각 그릇에 담긴 물을 따로따로 인식하는 개별성을 나타낸다(강범모, 2014:157).

이렇게 개별화된 표현은 특정적 표현이 되기 쉽다. 예컨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라는 표현에서 ‘주민들’은 특정한 어느 장소에 거주하는 복수의 주민 개개인을 의미한다. 이에 주민 한 명 한 명의 반대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의’의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주민’이 예컨대 ‘주민 투표’와 같이 쓰였다면 이는 ‘개별성’이 아닌 ‘집단성’이 반영된 표현이 된다. ‘집단’ 개념은 그 개체들의 개별성은 무시하고 묶음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이며(전영철, 2004:220), ‘주민 투표’에서 ‘주민’ 또한 개개인이 아닌,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주민’은 ‘투표’의 한 속성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N2와의 항목 연결성이 쉽게 파악되어 ‘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게 된다.

즉, 이러한 이유로 N1이 복수의 개체일 때 개별성을 나타내면 특정적인 경우가 많아 ‘의’ 사용의 필요성도 커진다. 그러나 집단성을 나타낼 때에는 속성으로서 N2에 귀속되는 성질을 나타내고, 이에 항목 연결성이 쉽게 파악되므로 ‘의’의 필요성도 감소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특정성, 속성, 개별성, 집단성의 의미 반영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1> ‘의’의 사용과 의미 특성

2.2. ‘의’의 사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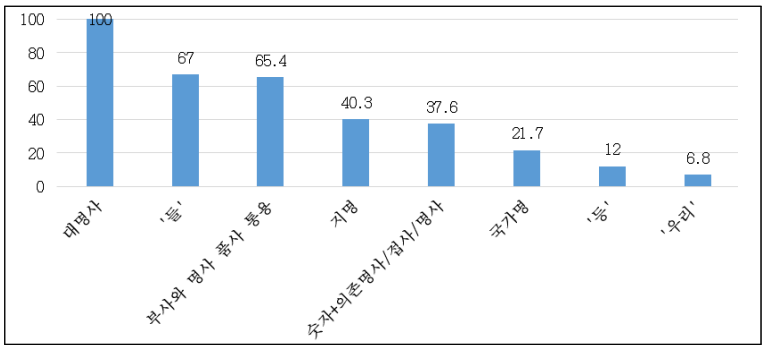
2.2.1. ‘의’의 빈도 특성

‘N1의 N2’에서 ‘의’가 사용된 빈도와 비율을 우선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은 N1을 관형어로 볼 수 있을 때 ‘의’가 사용되거나 생략된 빈도이다.

<표 1> ‘의’ 사용의 빈도와 비중

분류 \ 빈도	격식 문어	격식 구어	비격식 구어	‘의’ 사용 총합	‘의’ 생략
대명사+‘의’ (‘우리’ 제외)	7	15	13	35 (100%)	0 (0%)
‘들’+‘의’	27	28	0	55 (67%)	27 (33%)
부사와 명사 품사 통용의 N1+‘의’	5	12	0	17 (65.4%)	9 (34.6%)
지명+‘의’	20	7	0	27 (40.3%)	40 (59.7%)
숫자+의존 명사/접사/명사+‘의’	36	16	1	53 (37.6%)	88 (62.4%)
국가명+‘의’	13	17	0	30 (21.7%)	108 (78.3%)
‘등’+‘의’	9	0	0	9 (12%)	66 (88%)
‘우리’+‘의’	2	6	0	8 (6.8%)	110 (93.2%)
‘외’+‘의’	0	1	0	1 (100%)	0
총계	119	102	14	235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N1의 유형별로 ‘의’의 결합 비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총 빈도가 1회로 적게 나타난 ‘외’를 제외하고 ‘의’ 사용 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의’ 사용의 비중

한정적 속성을 가지면서 특정성을 거의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대명사에서 ‘의’의 결합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다른 표현들에서는 특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도에 따라 ‘의’의 결합 비중이 달라졌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빈도 산출 결과 및 각 N1의 특징을 고려해 유사한 유형은 통합하여 <1. 대명사+‘의’, 2. ‘들’+‘의’, 3. 부사와 명사 품사 통용의 N1+‘의’, 4. 국가명/지명+‘의’, 5. 숫자+의존 명사/접사/명사+‘의’, 6. ‘등/외’+‘의’, 7. ‘우리’+‘의’>의 순서로 특징을 살펴본다.

한편, ‘의’가 결합한 예시가 추출되었지만, N1의 특성상 ‘의’가 생략된 빈도를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의’의 사용 빈도만 분석하고 생략 빈도는 비교하지 않은 항목들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⁸⁾

<표 2> ‘의’ 사용의 빈도

분류 \ 빈도	격식 문어	격식 구어	비격식 구어	‘의’ 사용 총합
조사 + ‘의’	12	17	0	29
기타 고유명사 + ‘의’	93	10	0	103
은유 표현에 포함된 ‘의’	24	8	0	32
총계	129	35	0	164

위 표의 조사, 기타 고유명사, 은유 표현들에서도 N1이 N2와 특징적으로 연결될 때 ‘의’가 표시되고 ‘의’의 결합 빈도도 높은 편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자세한 분석은 앞서 제시한 유형에 이어 <8. 조사+‘의’, 9. 기타 고유명사+‘의’, 10. 은유 표현에 포함된 ‘의’>에서 살펴본다.

한편, 텍스트 유형적 특징과 관련하여, 비격식 구어에서 ‘의’의 빈도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접미사 ‘들’, ‘우리’와 관련된 ‘의’ 사용에서 구어적, 격식적 특징을 찾을 수 있었고 대명사에 범주에 속한 ‘그’에서도

8) 조사+‘의’는 대부분 ‘의’가 생략되면 선행 조사가 나타내는 품사 등의 다른 품사로 해석되게 되므로 관형어를 의도하였음에도 ‘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았다. 고유명사와 은유 표현은 어휘 특성상 동일 표현이 관형어로 ‘의’ 없이 사용된 예를 찾아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어적 특징이 관찰되어 이를 함께 살펴본다.

2.2.2. 특정성 및 개별성과 관련되는 ‘의’의 사용 양상

(1) 대명사+‘의’

다음은 ‘의’ 구문 중 N1이 ‘우리’인 항목을 제외한 대명사 표현의 빈도이다.⁹⁾

<표 3> 대명사+‘의’ 사용의 빈도와 비중

분류 \ 빈도	‘의’ 사용	‘의’ 생략	분류 \ 빈도	‘의’ 사용	‘의’ 생략
나의	1	0	그의	5	0
내	15	0	그분의	1	0
저의	2	0	이들의	1	0
제	10	0	총계	35 (100%)	0

위 표현들에서 ‘의’의 사용은 100%인데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 대명사와 같은 지시사는 특정성 운용자로(홍용철, 2010:39) 그 자체로서 다른 명사구를 특정적으로 지칭하기 때문이다. 즉, 대명사는 직시(deixis)의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로 파악되면서 앞에 나온 명사를 잇는 대용(anaphora)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N1이 후행 명사와 연결될 때에는 특정적으로 지시하게 되므로 이에 ‘의’의 역할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나의, 내, 저의, 제

‘나’와 ‘저’는 일인칭 낮춤과 높임의 대명사이며 본유적으로 특정성을 함의한다. 또한 축약형인 ‘내, 제’로도 사용되며 이는 사전의 표제어로도 등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비축약형의 빈도는 ‘나의’ 1회, ‘저의’ 2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축약형인 ‘내’ 15회, ‘제’ 10회에 비해 더 낮았다. 각

9) 대명사 중 ‘우리’는 일반적인 대명사가 주로 직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별도의 의미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 위 범주에서 분리하였다.

어휘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나의, 저의’가 사용된 문장부터 살펴본다.

- 1) A: 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점점 더 약간 약간.
B: 맞아맞아. ... 나의 만족. (비격식 구어)
- 2) 그건 저에 평소에 주장이고 ... (격식 구어)
- 3) 물론 일본의 절대 다수 의견은 그 저의 한국 쪽 의견에 ... (격식 구어)

1)에서 ‘나’는 특정적으로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 이때 ‘의’는 이러한 ‘나’를 ‘만족’과 연결하며 N2의 소유주 ‘나’를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내 만족’으로는 쓰일 수 없다. 한편, 2)의 ‘저의’는 지시의 측면에서 ‘나의’와 같이 화자 자신을 특정적으로 가리키고, 3)의 ‘저의’는 화자와 그 방향의 다수를 함께 가리켰지만, ‘저’는 1)과 같이 추상적 어휘와의 연결로 N1을 강조하는 용법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축약형 ‘내, 제’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내 주위의 한 분, 제 강의를 ...’과 같이 화자 자신을 지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다음과 같은 의도로 사용된 예도 있었다.

- 4)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 (격식 문어)
- 5) ... 내 입에서 나오는 연기라도 남에게 해롭다면 ... (격식 문어)
- 6) 상대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 (격식 구어)
- 7) 내 기억의 집이라는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격식 구어)

‘내’는 4)의 ‘내 집 마련’과 같은 관용어로 쓰일 뿐 아니라 5), 6)의 ‘내’와 같이 어떤 것에 대해 관련이 깊은 것처럼 1인칭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7)과 같이 앱의 이름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제’는 ‘제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는 필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 안에 ‘저의’가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나, 저’는 본유적으로 특징적인 표현이므로 관형적 쓰임에서 ‘의’가 생략되지 않는다. 다만 비축약형인 ‘나의, 저의’와 축약형 ‘내, 제’는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 ‘나의’는 추상적 맥락에서 필자 자신이 그것의 주체임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저의’는 그러한 사용이 적었다. 한편, 축약형인 ‘내’는 ‘내 집 마련’ 등과 같이 관용적으로도 쓰였고, ‘내 입에서, 내 자식처럼’과 같이 어떤 것을 1인칭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발신자의 의도를 표현하기도 했으며 어떤 것의 이름으로도 쓰였다. 한편, ‘제’는 관용적으로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것을 개별적, 배타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요’와 같이 자주 사용되었다.

ㄴ. 그의, 그분의, 이들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이’의 품사는 대명사와 관형사이며, 인칭과 비인칭 모두 가능하나, 이 중 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만이 ‘의’가 결합하였고, ‘그분’은 대명사로만 등재되어 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다른 대명사와 같이 특정성을 본유적으로 내재하며 다음은 그 사용 예이다.

- 8) 서울 노원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그의 옆으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다가왔다. (격식 문어)
- 9) 응 그분의 사업을 하시는데 ... (비격식 구어)

‘그의’는 대부분 특정인의 상황을 묘사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사용되어, 8)에서 ‘그의’ 또한 ‘그’가 처한 담배와 관련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김광해(1981)에서는 ‘의’의 문어적 문체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위와 같이 문어적 표현 ‘그’와 결합해서도 나타났다. ‘이들’ 또한 ‘이들의 응답을 분석했습니다.’와 같이 대명사로서 특정적 맥락에서 ‘의’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9)의 ‘그분’은 묘사적인 문체를 나타내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제삼자를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의’의 생략도 가능해 보인다.

즉, ‘그, 그분, 이들’은 모두 대명사로 특정성을 내재하여 ‘의’의 결합이 필요하고, 특히 ‘그의’는 문어적 문체를 나타낸다. 한편, ‘그분’은 일상적 지시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의’의 생략도 가능해 보이나 본 연구에서 그러한 예는 추출되지 않았다.

(2) ‘들’+‘의’

접미사 ‘들’에 ‘의’가 후행한 표현의 빈도는 총 55회, 67%이며 생략된 표현의 빈도는 27회, 33%로 나타난 바 있다. ‘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 명사의 각 개체를 개별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덩어리로 존재하던 개체들을 해체하여 각 경계를 분명히 하며, 이로써 현저한 개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백미현, 2002:2). 따라서 개체 각각이 특정적으로 후행 명사와 종속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이에 ‘의’의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본 자료에서는 약 67%로, 예외도 많은 편이었다. ‘들’에 ‘의’가 사용된 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주민들의 반대로 어린이집 설립이 무산된 사례가 10건에 달했다. (격식 문어)

10)에서 ‘주민들’은 주민 개개인이 반대 행위를 하였음을 나타내어 개별화되어 ‘의’를 통해 후행 명사 ‘반대’와 연결되었다. 만약 ‘주민 반대’라고 하여 ‘의’를 생략했다면 이는 ‘주민’이 개별화되지 않은 집단적 존재로서, ‘주민 대표, 주민 투표’와 같이 속성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한편, ‘들’은 ‘의’가 생략된 빈도도 약 33%로 높은 편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격식 문어 4회, 격식 구어 14회, 비격식 구어 9회로 추출되어, 구어에서 생략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 유형적 특성과 관련해 문어에서는 글의 제목에서 ‘의’의 생략이 나타났다.

11) 나는 그 삼사의 해설위원들 얘기도 다 들어보고. (비격식 구어)

12) 발달장애인들 ‘눈물’ 닦아주나 (격식 문어)

11)에서 화자는 세 개 방송사의 해설위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본 상황이므로 각 사람에 대한 개별적 인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어적 맥락에서 ‘의’가 생략되었다. 이는 앞서 대명사에서는 텍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의’가 사용된 것과는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편 12)는 글의 제목에서 ‘의’가 생략된 것으로, ‘들’에 후행하는

‘의’는 이같이 텍스트 유형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이외 문어에서도 ‘의’가 생략되었을 때에는 N2가 ‘사이, 속, 중’일 때가 많았다.

- 13) 국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격식 문어)
- 14)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 (격식 문어)
- 15) 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 (격식 구어)

위의 공통점은 모두 N2가 ‘사이, 속, 중’과 같은 명사로서 N1을 속성화한다는 것이다. 즉, N1이 후행 명사인 ‘외부(사이)나 내부(속, 중)’의 처소 역할을 하여 분리성이 약해져 ‘의’가 생략되었다.

즉, ‘들’은 복수인 선행 명사를 개별화하여 특징적으로 후행 명사와 연결하므로 ‘의’도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구어이거나 글의 제목일 때 등 텍스트 유형에 따른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구어 모두에서 N2가 ‘사이, 속, 중’의 부류일 때는 N1이 속성화되어 ‘의’가 거의 항상 생략되었다. 이에 ‘들’+‘의’는 전체적으로 약 67%의 결합률을 보였다.

(3) 부사와 명사 품사 통용의 N1+‘의’

‘의’가 결합된 N1 중에는 사전에 명사와 부사 두 개의 품사가 등재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다.¹⁰⁾ 이 중 이 단어들을 관형어로 볼 수 있으면서 ‘의’가 쓰인 빈도는 같다.

<표 4> 부사와 명사 품사 통용의 N1+‘의’ 사용의 빈도와 비중

분류	빈도	‘의’ 사용	‘의’ 생략	분류	빈도	‘의’ 사용	‘의’ 생략
현재의	5 (83.3%)	1 (16.7%)		각각의	2	0	
지금의	1 (33.3%)	2 (66.7%)		저마다의	1	0	
오늘의	1 (14.3%)	6 (85.7%)		서로의	1	0	
대부분의	4	0		총계	17 (65.4%)	9 (34.6%)	
사실상의	2	0					

10)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53).

위 항목들은 모두 명사와 품사를 겹쳐 ‘의’ 없이 관형어로 쓰이는 것도 가능하나,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지금, 오늘’을 제외하면 모두 ‘의’가 표시되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ㄱ. 현재의, 지금의, 오늘의

‘현재, 지금, 오늘’은 모두 시간 관련 표현이다. ‘현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금의 시간’을 뜻하며, ‘지금’의 사전적 의미는 ‘말하는 바로 이때’로 ‘현재’와 유사하다. ‘오늘’은 ‘현재, 지금’과 같은 시간 관련 표현이면서 발화하는 그 날을 가리킨다. 이 단어들은 다른 품사 통용의 단어들과 달리 ‘의’ 생략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주로 시간적 의미로 쓰이면서 후행 명사의 속성으로 사용될 때였다. 반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강조될 때는 ‘의’가 표시되었다. 이와 관련된 ‘현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6) 이들은 현재의 피해자 판정 기준을 질환별로 세분화해 ... (격식 문어)
 17)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이 있죠? (격식 구어)

16), 17)에서 ‘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생략하면 우선적으로 부사어로 해석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른 시점 대비 현재의 시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17)의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는 ‘현재’를 마치 대화가 가능한 유정물인 것처럼 표현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의’가 생략된 문장과 비교를 통해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 18)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 (격식 문어)

18)의 ‘의’가 생략된 ‘현재’는 ‘고2’ 학생을 수식하는 속성으로 쓰였고, ‘현재’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도 위 16), 17)에 비해 약하다.

한편, ‘지금’은 어휘적 의미는 ‘현재’와 유사하지만 의미의 확장성이 ‘현재’보다 약해 ‘의’ 미사용의 빈도가 더 높았다.

- 19) 지금의 교장승진제가 학교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 (격식 구어)

20) 지금 상황 하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체제로 바꾸는 것이 ... (격식 구어)

19)의 ‘지금의’는 ‘의’를 생략하면 부사어로 해석되는 것과 ‘지금의’로 다른 회차 대비 당시의 회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위 ‘현재의’와 쓰임이 유사하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와 같이 확장적으로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의’가 생략된 20)의 ‘지금’은 발화 당시의 시점을 의미하는 속성으로 쓰여 ‘의’가 생략되어 18)의 ‘의’가 쓰이지 않은 ‘현재’와 유사한 사용을 보였다.

‘오늘’은 ‘현재, 지금’에 비해 ‘의’ 미사용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그 경향성은 유사하다. 즉, ‘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N1이 부사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관형어로 쓰기 위해서는 ‘의’를 표시해 주어야 하고, 다른 시점과 대조하여 ‘오늘’을 강조하고자 할 때도 ‘의’가 사용되는 점이다. 예컨대 ‘오늘의 주제는 ...’과 같이 ‘오늘’의 주제를 다른 날의 주제와 대비하여 강조할 때는 ‘의’가 표시된다. 그러나 ‘오늘 밤, 오늘 아침’과 같이 후행 명사의 시간적 속성으로 기술되면 ‘의’가 생략되며, 이러한 생략의 빈도가 ‘현재, 지금’보다 더 높았다.

즉, 정리하면 ‘현재, 지금, 오늘’은 모두 관형어로서의 쓰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며 ‘의’가 생략되면 부사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는 N1을 강조하거나 확장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많이 쓰인다. 그러나 N2의 속성으로 쓰일 때는 ‘의’가 결합하지 않으며 이에 ‘의’가 결합한 비중은 ‘현재>지금>오늘’ 순이었다.

ㄴ. 대부분의, 사실상의

‘대부분, 사실상’은 모두 어떤 양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종의 양화 의미를 갖는다.¹¹⁾ 정상희(2021)에 따르면 ‘대부분’은 양화사 중 하나로 전체의 수를 고려하여 관계적으로 해석되므로, 집합적이거나 집단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정상희, 2021:75). 따라서 ‘대부분’은

11) 이러한 양화사의 예로는 ‘대부분, 거의, 모든’ 등이 있다(정상희, 2021:75).

집단적 명사로서 ‘의’의 생략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은 추상적인 맥락에서 쓰이긴 하나, 높은 비중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대부분’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집단성을 나타냄에도 ‘의’의 결합 비중이 매우 높는데 그 이유는 부사와 품사를 통용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의’를 생략하면 부사어로의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관형적 쓰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의’의 사용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 21) 대부분에 에 국민들은 음~ 거기에 내실은 잘 몰라도 ... (격식 구어)
 22) 사실상의 변 반환의 형식으로 취해져 있고 있는 걸로 ... (격식 구어)

21), 22)에서 ‘의’는 생략 가능하지만 생략하면 부사어로 해석되게 된다. 그리고 ‘의’를 결합함으로써 양적, 추상적으로 ‘높은 비중’의 의미가 더 분명히 나타나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ㄷ. 각각의, 저마다의, 서로의

‘각각, 저마다, 서로’¹²⁾ 또한 ‘대부분, 사실상’과 같이 관형어일 때는 ‘의’가 사용된 문장만이 검색되었다. 이들은 모두 N2에 속한 복수의 개체들을 개별화하는 명사로 특정적으로 후행 명사와 연결된다. 또한 이 단어들도 ‘의’를 생략하면 부사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관형어로서의 쓰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진다.

- 23) 한 달씩 기간을 정해 각각의 부모와 같이 사는 생활방식이 ... (격식 구어)
 24)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 ... (격식 구어)
 25) 지역별 피어그룹을 형성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 (격식 구어)

23)-25)에서 ‘각각, 저마다, 서로’는 모두 복수의 개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화하는 의미를 가져 특정적으로 N2와 연결되며 모두 ‘의’를

12) ‘저마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이 아닌, 하나의 단어로서 부사,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생략하면 부사어로의 해석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관형어로서 N2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사 ‘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국가명/지명+‘의’

국가의 이름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지명’으로 표시된 명사가 관형어로 쓰였을 때 ‘의’ 결합 빈도와 비중은 앞서 살펴보았듯 국가명 30회, 21.7%, 지명 27회, 40.3%이다.¹³⁾ 이들은 생략의 빈도가 사용의 빈도보다 높아 각각 108회, 78.3%, 40회, 59.7%로 ‘의’가 생략되었다. 우선 국가명에 관해 다음 문장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본다.

26) 영국의 십 대 소녀가 이끄는 캠페인이 ... (격식 구어)

위에서 ‘영국의 십 대 소녀’는 영국에 있는 특정한 한 명의 십 대 소녀를 가리킨다. 즉, ‘영국’이라는 국가를 ‘소녀’라는 독립된 한 개체와 연결하여 특정적이므로 ‘의’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만약 ‘의’를 생략하여 ‘영국 십 대 소녀’라고 한다면 ‘영국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십 대 소녀’로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의’가 생략된 ‘영국’은 대다수의 십 대 소녀를 수식하는 속성적 의미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명 뒤에서 ‘의’의 생략 빈도가 높아진 이유는, 국가명이 후행 명사의 속성으로 자주 쓰여 때로는 통사적 복합어화되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통사적 복합어는 명사구와 복합어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N1이 N2의 속성으로 자주 쓰여 굳어진 표현이다.¹⁴⁾ N1이 지명일 때도 국가명과 유사하게 속성으로 쓰일 때가 많아 ‘의’의 생략이 많은 편이다.

13) • 국가명: 미국 6회, 영국 3회, 덴마크/이란/일본/한국 2회, 대한민국/ 도미니카공화국/ 독일/러시아/브라질/스웨덴/시리아/중국/캐나다/태국/튀니지/핀란드/홍콩 1회 • 지명: 서울 5회, 뉴욕 4회, 부산 3회, 베를린 2회, 경기도/동해안/북아프리카/북유럽/분당/브리스톨/오르후스/유럽/일산/존슨 카운티/중동/펜실베이니아/평촌 1회

14) 통사적 복합어는 예를 들면 ‘중국 요리’와 같이, N1을 N2로부터 분리할 수 없어 ‘중국의 요리’와 같이 분리되지 않으며, N1이 N2의 속성으로 기능하는 특징이 있다(김광해, 1981:9).

- 27)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이 시장은 ... (격식 문어)
28) 이는 경기도 전체 상승률 5.5%보다 높은 것인 데다 ... (격식 문어)

27)에서 ‘의’는 ‘경기도’와 같은 지역명이 N2 행위의 주체로 연결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28)의 ‘경기도 전체 상승률’에서 ‘경기도’는 ‘전체 상승률’의 속성으로 표현되어 ‘의’가 표시되지 않았다.

즉, 정리하면 ‘국가명/지명’은 개별성, 특정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후행 명사의 속성으로 더 많이 표현되어 ‘의’가 자주 생략된다. 특히 국가명은 통사적 복합어화로 진행 중인 경우도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의 결합이 국가명, 지명에서 약 21.7%, 40.3%로 이루어졌다.

(5) 숫자+의존 명사/접사/명사+‘의’

일반적으로 수량사로 많이 언급되는 ‘숫자+의존 명사/접사/명사’ 구문에서 ‘의’가 쓰인 빈도와 비중은 다음과 같다.¹⁵⁾

<표 5> 숫자+의존 명사/접사/명사+‘의’ 사용의 빈도와 비중

빈도		‘의’ 사용	‘의’ 생략
분류			
의 존 명 사	권	1 (100%)	0
	명	9 (100%)	0
	원	4 (100%)	0
	위안	1 (100%)	0
	점	1 (100%)	0
	킬로미터	1 (100%)	0
	통	1 (100%)	0
	초	1 (100%)	0
	번	1 (100%)	0
	건	1 (100%)	0
	개	12 (36.4%)	21 (63.6%)
	년	1 (2.4%)	41 (97.6%)
	총계	53 (37.6%)	88 (62.4%)
빈도		‘의’ 사용	‘의’ 생략
분류			
접사	국	1 (100%)	0
	분	2 (100%)	0
명사	길이	1 (100%)	0
	달러	1 (100%)	0
	문장	1 (100%)	0
	팀	1 (100%)	0
	곳	2 (66.7%)	1 (33.3%)
	층	2 (15.4%)	11 (84.6%)
	총계	53 (37.6%)	88 (62.4%)

15) • 국: 동아시아 3국 1회, • 분: 삼분의 일 2회

년대	1 (14.3%)	6 (85.7%)
월	2 (40%)	3 (60%)
살	1 (25%)	3 (75%)
프로(%)	4 (66.7%)	2 (33.3%)

위 표는 ‘의’의 생략 비중을 기준으로 음영 표시를 한 것이다. 음영 표시가 되지 않고 ‘의’의 생략이 나타나지 않은 항목의 수는 전체의 약 3분의 2 정도이다. 반면 의존 명사인 ‘개, 년, 년대, 월, 살, 프로(%)’와 명사인 ‘곳, 층’은 대부분 ‘의’가 생략된 빈도가 더 높았다.

대부분의 수량사는 ‘의’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나타난 수량 표현들은 보통 관계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전체 수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인 양이나 수로 이해되므로, 결속성이 없어 배분적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정상희, 2021:75). 이에 각 개별적 존재를 후행 명사와 특정적으로 연결하게 된다. 그런데 표에서 음영 표시된 항목들은 이와 달리 ‘의’가 생략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경향성과 다른 사용을 보였다. 이에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각각에 관해 살펴본다.

ㄱ. 의존 명사 ‘개’

‘개’는 전체의 약 36.4%에서 ‘의’가 사용되었으며, ‘의’가 쓰인 문장과 쓰이지 않은 문장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29) 두 개의 다른 가족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어 ... (격식 구어)

30) 올해는 37개국 233개 갤러리가 7개 부문 행사에 참여했다. (격식 문어)

29)에서 ‘두 개의’는 ‘다른 가족 문화’를 수식하며 서로 다른 두 개체 각각을 가리켰다. 즉, 개별화된 각 가족 문화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N2와 특정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의’가 쓰이지 않은 30)의 ‘233개 갤러리’, ‘7개 부문’은 그 수치가 속성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용법은 이외에도 ‘11개 품목, 143개 지방공기업, 12개 문양, 6개 대학’ 등으로 다양했다. 이러한 ‘개’의 속성적 용법으로 인해 ‘의’의 생략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ㄴ. 의존 명사 ‘년, 년대, 월, 살’

‘년, 년대, 월, 살’은 각각 97.6%, 85.7%, 60%, 75%의 높은 비중으로 ‘의’ 없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나이를 나타내는 ‘살’을 제외하면 시간 관련 표현인 공통점이 있다. 이 중 ‘년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1) 오륙십 년대의 소품을 넣은 기억상자를 제공해온 ... (격식 구어)
 32) 세계화란 이름으로 구십년대 초반에 그렇게 됐습니다. (격식 구어)

31)에서 ‘년대’는 N2인 ‘소품’과 의미적으로 시간 표현과 물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N1과 N2 사이의 연결을 위해 ‘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2)의 ‘구십년대’는 같은 시간 표현인 후행 명사 ‘초반’과 함께 동일한 시간적 속성을 나타내어, N1과 N2 사이의 구별성이 약하다. 이에 ‘의’의 필요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년, 월, 살’의 ‘의’ 생략 예는 다음과 같다.

- 33) 년: 천구백육십이 년 제 오차 헌법 개정 때/ 2015년 佛 문단 혼든
 34) 월: 5월 상반기/ 지난 4월 총선에서
 35) 살: 12살 아들과/ 여섯 살 꼬마 베넷은

33)-35)와 같이 ‘년, 월, 살’은 후행 명사의 속성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34)의 ‘5월 상반기’와 같이 시간 관련 표현이 연속적으로 쓰이기도 하여 ‘의’의 생략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살’은 시간 표현은 아니지만, 시간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속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시간 표현의 속성적 쓰임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정리하면 ‘년, 년대, 월, 살’은 후행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의’가 생략된 빈도도 높아졌다. 이는 앞서 시간 표현 ‘현재, 지금, 오늘’이 ‘의’가 생략되면 부사어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성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의’의 생략이 많았던 것과도 유사하다.

㉔. 명사 ‘곳, 층’, 의존 명사 ‘프로(%)’

‘곳, 층, 프로(%)’는 ‘의’ 생략형의 빈도도 높은 편이며 다음 예를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본다.

- 36) 곳의: 경합주 11곳의 공화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 (격식 문어)
- 37) 층의: 지상 47층의 18개 동 (격식 문어)
- 38) 층: 3층 오디오관은 이곳 관람의 인상 깊은 대단원을 ... (격식 문어)
- 39) 프로(%)의: 클린턴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 (격식 문어)

36)에서 ‘의’가 사용된 ‘11곳의’는 소속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의’로 연결되었다. 37) 또한 N1, N2가 모두 숫자적 설명으로 ‘층’이 18개 동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어 개별화된 의미를 나타내므로 특징적으로 N2를 지칭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8)의 ‘3층’은 ‘오디오관’과 같은 장소의 한 종류로 속성으로 표현되어 ‘의’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한편 39)에서 ‘프로(%)’는 N2 ‘지지율’이 의미적으로 수치가 관건이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에 ‘의’가 쓰이지 않은 예로는 ‘순도 99% 순금’이 있었는데 이 또한 ‘99%의’로 N1을 강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곳, 층, 프로(%)’는 N1이 강조되거나 특징적으로 언급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보인다.

(6) ‘등/외’+‘의’

‘등’과 ‘외’는 모두 의존 명사이며 그 의미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 및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컨대 ‘사과, 배, 귤 등’은 ‘사과, 배, 귤’을 포함한 다른 것 혹은 ‘사과, 배, 귤’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편 ‘외’는 ‘등’과 달리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벗어남’만을 뜻한다. 따라서 ‘사과, 배, 귤 외’라고 했을 때 ‘사과, 배, 귤’을 제외한 다른 영역을 가리킨다. 그리고 ‘외’는 지시 대명사와도 잘 어울려 ‘그 외에’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여 ‘이외’는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두 표현에 ‘의’가 사용된 빈도와 비중은 각기 ‘등’ 9회, 12%, ‘외’ 1회이다. ‘등’은 생략 횟수가 66회, 88%로 나타나 ‘외’에 비해 전체 빈도도 높고 ‘의’의 생략 비중도 큰 항목이다.

40) 흰줄숲모기 등의 방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격식 문어)

41) 다른 이 외의 거는 못 써야 된다. 이런 제약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격식 문어)

‘등’은 40)에서 N2인 ‘방제’와 분리된 항목으로서 연결된 사용을 보였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공공병원 23곳 등 112곳에서’와 같이 후행 양화사를 계속하여 수식하는 속성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의’ 생략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외’가 쓰인 41) ‘이 외의’에서 ‘이’는 지시 대명사로 특정성을 함의하여 조사 ‘의’가 사용되었다.

즉, ‘등’은 N2와 분리되어 특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류의 수량을 수식하는 속성적인 사용도 많아 ‘의’의 생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외’는 지시 대명사와 결합이 가능해 특정성이 표현된 ‘이 외의’만이 검색되었다.

(7) ‘우리’+‘의’

‘우리’는 대명사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대명사와 달리 ‘의’의 생략 비중이 매우 높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가 미사용된 빈도가 110회, 93.2%로 ‘의’가 사용된 빈도인 8회, 6.8%보다 높았다. 빈도에서 볼 수 있듯 ‘우리’의 더욱 일반적인 쓰임은 관형어로 ‘의’ 없이 사용되는 것이다.

자세한 사용 양상은 ‘우리’의 경우 텍스트 유형별로 차이가 나므로 비격식 구어부터 살펴볼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일반적인 용법인 ‘의’ 생략형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용법 대비 ‘의’가 사용되는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우선 비격식구어에서 ‘우리’는 대부분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법 중 ‘우리 엄마, 우리 신랑’과 같이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비격식구어 자료에서 사용된 ‘우리’는 총 45회로, 모두 ‘화자와 가족 관계인 가까운 인물, 기타 화자 관련 인물,¹⁶⁾ 가게, 동물, 아파트, 윗집, 친구’에 대해 모두 이러한 쓰임을 보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42) 요즘 우리 엄마도 막 티비 같은 거 보면 ... (비격식 구어)

위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의 엄마’로 교체가 어색하며, 이러한 사용의 이유는 사전의 뜻과 같이 내집단을 나타내는 ‘우리’로 친근함을 표시하거나 또한 이러한 사용이 일반화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격식 구어와 문어에서 ‘우리’가 ‘의’ 없이 관형어로 쓰인 빈도는 65회로, 대부분 화자가 속한 기관이나 다른 인물들을 ‘우리 교육, 우리 국과수, 우리 국민’ 등으로 언급하였다.¹⁷⁾

43) 자 우리 김순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격식 구어)

44) 정말 우리 교육에 어떤 그~ 터전이 되고 중요한데 ... (격식 구어)

43)에서 ‘우리 김순덕 위원님’은 친근감 표시의 기능이 강한 경우이다. 여기서 ‘우리’는 청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화자 측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

44)에서 ‘우리’의 방향성은 수신자 측도 포함하며 N2의 속성으로 쓰였다.

이같이 ‘우리’는 발신자 측뿐 아니라 수신자 측도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누군가를 포함한 집단적인 표현들은 다시 말하면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성은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상희, 2021:166, 167). 앞서 살펴보았듯 이렇게 개별성이 약화되고 집단성이 강화되면 특징적이기보다는 속성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에 김정남(2003)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용법을 ‘비지시적’이라고 보기도 하였다(김정남, 2003:269). 지시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대명사에 속하는 ‘우리’가 비지시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16) ‘운전해 주시는 분, 손님들’ 등.

17) ‘우리 교육, 우리 학교, 우리 사회, 우리 국민, 우리 위원님, 우리 학부모, 우리 선생님, 우리 자신’ 등.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며 이에 ‘우리’는 특정성이 약해져 ‘의’의 결합 빈도도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N1이 강조될 때, 특히 대조적으로 강조될 때는 ‘의’가 결합하여 특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빈도는 전체의 약 6.8%였으며 다음은 그 예이다.

45) 보통 사람이자 나약한 존재인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격식 문어)

46) 세계의 학회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술력이라던가 ... (격식 구어)

45)에서 ‘우리’는 ‘다른 편이 아닌 필자의 편’을 강조한다. 46) 또한 ‘우리’로 하나의 내집단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나라를 대조의 대상으로 옆두에 두고 화자가 속한 나라를 강조하며 ‘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의’ 사용에는 텍스트 유형적 특징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가 격식 문어와 격식 구어에서 8회 사용되었고 비격식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아 격식성을 나타낸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정리하면 ‘우리’는 내집단을 강조하고 개별성을 약화시킨 집단적 표현으로 후행 명사의 속성으로 자주 쓰여 ‘의’의 빈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의’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른 대상과 대조되는 내집단을 그 전체로서 강조할 때이다. 이러한 사용은 주로 격식 문어, 격식 구어에서 나타났으며 결합 비율은 6.8%였다.

(8) 조사+‘의’

다음은 조사에 ‘의’가 후행했을 때의 각 빈도이며, 아래에서 볼 수 있듯 ‘의’에 선행한 조사들은 의미격/접속조사와 한정적 보조사로 제한된다.

<표 6> 조사+‘의’ 사용의 빈도

분류 \ 빈도		‘의’ 사용	분류 \ 빈도		‘의’ 사용
의미격/접속조사	(으)로	1	한정적 보조사 ¹⁸⁾	까지	1
	(으)로부터	1		마다	1

	(으)로서	1		만	3
	에서	7			
	과/와 ¹⁹⁾	14	총계		29

위와 같이 의미격/접속조사와 한정적 보조사 부류의 조사들은 작용역이 ‘의’보다 좁아, 작용역이 좁은 조사가 넓은 조사에 선행한다는 조사 결합 원리의 순서를 따른다.²⁰⁾ 특히 이 중 ‘까지’는 시공간이나 N1 범주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문 전체에서 극단의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실을 유추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여(홍사만, 2002:340) 전자는 한정적 보조사, 후자는 확장적 보조사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의’와 결합한 ‘까지’는 모두 전자의 한정적 용법에 해당하여 ‘의’의 한정적, 특정적 특성을 보여 주었다. 목정수(2007)에 따르면 ‘의’는 피수식어의 외연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성을 나타내는데(목정수, 2007:458)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렇게 ‘까지’와 같이, 확장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조사라 하더라도 한정적 용법만이 ‘의’에 선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한정성은 특정성의 범주 제한적 특징과도 관련된다.²¹⁾

‘의’의 생략 여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에 선행하는 조사가 의미격 조사이면 보통 N1은 ‘의’가 쓰이지 않을 경우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로 해석된다. 따라서 ‘의’의 생략이 문장 전체를 비문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N1의 관형어적 쓰임을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의’의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18) 보조사의 의미가 선행 명사로 한정되어 이같이 표기하였다.

19) ‘과/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격 조사이기도 하고 접속조사이기도 하다.

20) 조사 간 결합에서 일반적으로 선행 조사의 작용역이 후행 조사의 작용역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의미격조사(+접속조사)+보조사1+구조격조사/보조사2’의 조사 간 결합 순서를 따른다(김혜진, 2022:44-45). 보조사1 부류의 조사들은 작용역이 선행 명사에 한정되는 한정적 속성을 나타내며, 보조사2 부류는 작용역이 문장 이상의 단위로 확장되는 속성을 갖는다.

21) 예컨대 한정한(2012)에 따르면 작용역이 N1으로 한정되는 조사 ‘만’은 ‘-만의’로도 사용되나, 작용역이 선행 명사를 벗어나는 ‘도’는 ‘-도의’와 같이 사용되지 않으며, 이는 곧 ‘의’가 선행 명사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한정한, 2012:56)

47) 과학자로서의 그런 꿈을 키우면서 ... (격식 구어)

48) 나만의 기억상자를 만들 수 있죠. (격식 구어)

47)의 ‘과학자로서의’는 ‘꿈’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해석되지만, ‘의’를 생략하면 ‘과학자로서’가 부사어로 해석되어 ‘키우면서’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8) 또한 ‘의’를 생략하면, ‘나만’이 관형어가 아닌, 주어로 해석되는 동시에 ‘나만이 기억상자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를 의미하게 되어 ‘나만의 특별한 기억상자’라는 본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N1에 ‘의’가 결합해 관형어로 해석되는가 아닌가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의’의 결합이 문장의 자연스러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N1에 결합한 조사가 보조사이거나 ‘과/와’일 때로, ‘의’가 없어도 관형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49)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높이 (격식 문어)

50) 사교육과 공교육과에 그 관계에 관한 애긴데 ... (격식 구어)

49)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는 ‘의’가 없어도 여전히 관형어이다. ‘과/와’에 ‘의’가 연결된 50) 또한 ‘의’를 생략해도 ‘사교육과 공교육’이 ‘관계’를 여전히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9), 50)에서도 ‘의’의 역할이 없지 않은데, ‘의’로써 N1과 N2 사이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N1의 존재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의’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가 ‘높이’의 속성으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0)의 ‘사교육과 공교육과’도 ‘의’로 인해 N1과 N2 각각의 독립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즉, 이러한 ‘의’는 위 47), 48)과 같이 문장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강조의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강조의 효과는 ‘의’의 유표성 때문이기도 하다. 무표형과 유표형 모두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한 경우 유표형을 쓰면 그것은 더 정보적인 텍스트가 된다(강범모, 2014:164). 즉, 49), 50) 모두 ‘의’가 생략되어도 N1의 관형어적 역할이 가능하지만, ‘의’의 유표형이 더 정보적이며 이로써 N1이 더 강조되게 된다.

즉, 정리하면, ‘의’에 선행하는 조사는 작용역이 N1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는 N1을 특징적인 명사구로 만드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명사구들은 ‘의’가 생략되면 관형어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의미 차이를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보조사나 ‘과/와’에 후행하는 ‘의’는 해석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때 ‘의’는 유표형으로 N1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9) 기타 고유명사+‘의’

고유명사에 ‘의’가 결합한 양상은 다음과 같이 기관이나 단체명, 작가의 이름, ‘-씨’가 결합된 표현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7> 기타 고유명사+‘의’ 사용의 빈도

분류 \ 빈도	‘의’ 사용	분류 \ 빈도	‘의’ 사용
기관/단체명	26	‘-씨’	45
작가의 이름	32	총계	103

위와 같이 고유명사에 ‘의’가 결합한 빈도는 높은 편이며, 각 유형별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 51) 기관/단체명: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 (713억달러)은 지난해 2위에서 4위로 밀렸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560억달러)는 처음으로 5위권에 들었다. (격식 문어)
- 52) 작가의 이름: 또 나탈리 아줄레의 ‘티투스는 베레니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도 ... (격식 문어)
- 53) ‘-씨’: 담배 불뚝이 기 씨의 원피스로 날아와 손톱만 한 구멍을 냈다. (격식 문어)

51)-53)의 공통점은 ‘의’가 생략 가능하지만 사용했을 때 N1이 더 독립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51)에는 ‘페이스북 창업자’와 같이 ‘의’가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 이는 앞선 ‘자라의’와 달리 ‘페이스북’이 ‘창업자’를 속성적으로 수식하는 용법으로 이해된다. 즉, 고유명사들 또한 N1이 독립

적이고 특정적일수록 ‘의’의 사용이 필요하고, 속성적일수록 ‘의’의 사용이 불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관/단체명, 작가의 이름, ‘-씨’의 표현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10) 은유 표현에 포함된 ‘의’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노양진·나익주 역, G. Lakoff&M. Johnson, 2006:24).²²⁾ 따라서 결국 N1과 N2이 다른 종류의 사물임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 ‘의’에 의해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김광해, 1981:51). 따라서 N1은 N2와 충분히 독립적이며 그 연결을 위해서는 ‘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의’가 사용된 은유 표현은 은유하는 표현이 N2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N1이 은유 표현인 N2와 강제적으로 관련지어진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다.²³⁾ 앞서 살펴본 은유 표현의 총 빈도는 32회였으며 이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 N1이 속성을 갖는 대상 5회: 공교육의 힘, 사교육의 힘, 유럽의 잔인함, 인문학의 힘, 함성의 힘
- N1이 행위의 주체 1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 N1이 신체의 주인 8회: 세상의 눈(2회), 신의 눈, KT의 손, 뉴욕의 민낯, 박물관의 심장, 케이티의 손, 한민족의 목소리
- N1이 N2 발생/형성의 근거 4회: 갈등의 도화선, 김상진 작가의 사운드 조각, 사랑의 열매, 행복한 기억의 한 조각
- N1이 자연적 현상의 주체 2회: 난민들의 물결, 초연작의 홍수
- N1의 장소가 N2 10회: 가요사의 보물창고, 갈등의 골, 공화당의 텃밭, 대선의 전쟁터, 새누리당의 텃밭, 소방대원의 마지막 길, 예술의 전당, 음반의 산실, 향수의 늪, 흙수저들의 탈출구

22) ‘은유’와 유사한 ‘비유’는 보통 ‘마치, -처럼’과 같은 두 개체 사이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은유와 차이가 있다.

23) 김광해(1981)는 은유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 강제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김광해, 1981:51). 이는 그만큼 N1과 N2의 개념이 그 이전에는 서로 온전히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 N2의 위치가 N1 2회: 당신 손끝의 담배, 아이 눈앞의 흥기

위 표현 중 한 예를 들면 ‘공교육의 힘’은 ‘공교육’이 필자가 말하고 있는 주된 대상이고 은유된 표현은 ‘힘’이다. ‘공교육’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속성 중 ‘강한 힘’에 관해 특정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또한 ‘공교육’은 유정물이 아님에도 유정물의 속성인 ‘힘’과 연결되었으므로 두 표현 간 항목 연결성이 약해 ‘의’라는 연결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N2가 장소나 위치를 은유적으로 제시할 때에도 이러한 특정적 연결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요사의 보물창고’에서 ‘가요사’라는 역사는 추상적 개념이기에 물리적 장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보물창고’라는 가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위치시켜 서로 다른 두 유형의 개념을 ‘의’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N2가 아닌 N1이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당신 손끝의 담배, 아이 눈앞의 흥기’에서도 볼 수 있다. 선행 명사인 ‘당신 손끝’, ‘아이 눈앞’은 후행 명사의 위치로, 그것에 위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 중 하나로 ‘담배’와 ‘흥기’가 선택되어 연결되었다. 동시에 ‘손끝’, ‘눈앞’과 같이 매우 일상적인 위치가 ‘흥기’가 될 수도 있는 ‘담배’라는 특수한 물체와 대조적으로 강조되어 연결되기 위해서도 ‘의’의 역할이 필요했다.

(11)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본 연구의 말뭉치 자료로 분석된 유의미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며,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힌다.

<표 8> 각 유형별 사용상의 특징 및 관용적 표현

N1의 유형		사용상의 특징 및 관용적 표현
1. 대명사	나, 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 (‘의’ 결합 100%) - ‘나’는 N2에 추상적 어휘가 사용되어 강조되기도 한다. 예: 나의 만족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 (‘의’ 결합 100%) - 어떤 것을 1인칭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표현하기도 한다. 예: 내 입에서 나오는 연기라도, 내 자식처럼 - 이름에 쓰이기도 한다. 예: 내 기억의 집 - 관용적 표현: 내 집 마련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 (‘의’ 결합 100%) -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나’를 개별적, 배타적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 관용적 표현: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구요
	그, 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 (‘의’ 결합 100%) - 인칭 대명사에만 ‘의’가 결합한다. - ‘그의’는 묘사적, 해설적인 문어의 문체 특성을 보인다.
	그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 (‘의’ 결합 100%) - ‘의’ 생략도 가능하나 그러한 예는 찾아지지 않았다.
2. ‘들’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 — 특정성 (‘의’ 결합 67%) - 텍스트 유형이 구어, 글의 제목일 때 ‘의’ 생략 가능하다. - N2가 ‘사이, 속, 중’일 때는 문어에서도 ‘의’가 쓰이지 않는다.
3. 부사와 명사 품사 통용의 N1	현재, 지금, 오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 속성 (각각 ‘의’ 결합 83.3%, 33.3%, 14.3%) - N1이 강조될 때는 특징적으로 쓰여 ‘의’가 사용되지만 속성으로 쓰여 ‘의’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예: 오늘의 주제 vs 오늘 밤 - 확장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때는 ‘의’가 결합한다. 예: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 ‘의’가 생략되면 부사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관형어로 나타내기 위해 ‘의’가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 사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성 — 속성 (‘의’ 결합 100%) - ‘집단성’을 나타내면 보통 비특정적이지만, ‘의’가 쓰이지 않으면 부사어로 해석되는 이유로 관형어로 쓰일 때는 항상 ‘의’가 결합한다.
	각각, 저마다, 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 — 특정성 (‘의’ 결합 100%) - ‘의’가 쓰이지 않으면 부사어로 해석되며 의미적으로도 개별성 — 특정성이 나타나 ‘의’ 결합의 빈도가 높다.
4. 국가명/지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 — 특정성, 집단성 — 속성 (국가명 ‘의’ 결합 21.7%, 지명 ‘의’ 결합 40.3%) - 개별성과 특정성에는 ‘의’가 사용되고, 집단성과 속성에서는 거의 생략되는 다양한 예가 나타난다. 예: 영국의 십대 소녀 vs 영국 십대 소녀
5. 숫자+	권, 명,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 — 특정성 (‘의’ 결합 100%)

의존 명사/접사/ 명사	위안, 점, 킬로미터, 통, 초, 번, 건	- 수량사에서 일반적인 특정성의 의미가 주로 반영된다.
	개	• 개별성 — 특정성, 집단성 — 속성 (‘의’ 결합 36.4%) - 개별성과 특정성에는 ‘의’가 사용되고, 집단성과 속성에는 거의 생략되는 다양한 사용이 나타난다. 예: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족 문화 vs 233개 갤러리
	년, 년대, 월, 살	• 개별성 — 특정성, 집단성 — 속성 (각각 ‘의’ 결합 2.4%, 14.3%, 40%, 25%) - 개별성과 특정성에는 ‘의’가 사용되고, 집단성과 속성에는 거의 생략되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예: 오륙십 년대의 소품 vs 구십년대 초반
	국, 분, 길이, 달러, 문장, 팀	• 개별성 — 특정성 (‘의’ 결합 100%) - 수량사에서 일반적인 특정성의 의미가 주로 나타난다.
	곳, 층, 프로(%)	• 개별성 — 특정성, 집단성 — 속성 (각각 ‘의’ 결합 66.7%, 15.4%, 66.7%) - 개별성과 특정성에는 ‘의’가 사용되고, 집단성과 속성에는 거의 생략된다. 예: 47층의 18개 동 vs 3층 오디오관
6. ‘등/외’	등	• 개별성 — 특정성, 집단성 — 속성 (‘의’ 결합 12%) - 개별성과 특정성의 의미에는 ‘의’가 사용되고, 집단성과 속성에는 거의 생략되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예: 흰줄 숲모기 등의 방제 vs 23곳 등 112 곳
	외	• 특정성 - 지시 대명사와 쓰인 ‘이 외의 것은’ 1회가 관찰되었다.
7. 우리	-	• 특정성, 집단성 — 속성 (‘의’ 결합 6.8%) - 대명사이지만 집단성, 및 비지시적 용법이 강해 속성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의’의 생략이 빈번하다. - 집단 전체를 강조할 때는 타 집단과의 대조적 강조로 ‘의’의 사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 텍스트 유형적 특징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 엄마’와 같은 용법은 비격식 구어에서 주로 쓰이며, 강조의 ‘우리의’는 격식 문어와 격식 구어에서만 쓰이고 비격식 구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8. 조사	의미격/접 속조사, 한정적 보조사	• 특정성 (‘의’ 결합 총 29회) - ‘의’가 생략되면 다른 문장 성분으로 해석되거나 문장의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 - ‘의’ 없이 관형어가 가능한 ‘과/와’, 한정적 보조사의 경우 ‘의’가 결합하면 유표성으로 인한 강조 기능이 나타난다.

9. 기타 고유명사	기관/단체 명, 작가의 이름, ‘-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성 — 특정성, 집단성 — 속성 (‘의’ 결합 총 103회) - 개별성과 특정성에는 ‘의’가 사용되고, 집단성과 속성에는 ‘의’가 거의 생략되는 다양한 현상이 있으나 ‘의’의 사용 빈도도 높은 편이다. 예: 자라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 vs 페이스북 창업자
10. 은유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 (‘의’ 결합 총 32회) - N1과 N2이 온전히 다른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의’의 연결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말뭉치라는 현실 언어 자료에서 ‘의’의 사용 양상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의’의 사용이 특정성, 개별성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앞서 언급되었듯 한국어 학습자가 ‘의’의 사용에 관한 보다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예컨대 서두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에서 ‘의’는 화자가 ‘저마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면서 ‘규칙’과 특정적으로 연결하고자 할 경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저마다’를 ‘모두가 다 다르다’는 속성으로 언급하고자 한다면 ‘의’를 생략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마다’가 ‘만들다’의 주어가 아닌, ‘다양한 규칙’의 관형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의’를 표시해 주었을 수 있다.

한편, ‘의’의 사용은 이외에도 음운적, 통사적인 다양한 현상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에 관한 더욱 종합적인 관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말뭉치 자료의 양을 더 늘려 분석한다면 특정성과 개별성에 관한 또 다른 예시가 추출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범모(2014), 『양화와 복수의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Kang, B. M.(2014), *Yanghwa-wa Boksu-ui Umiron(The Semantics of Quantification and Plurality)*, Seoul: Hanguk Munhwasa
- 고영근 · 구분관(201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Ko, Y. K. & Koo, B. K.(2018), *Urimmal Munbeomnon(Korean Grammar Theory)*, Seoul: Jipmundang
- 권혁승 · 정채관(2012), 『코퍼스 언어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Kwon, H. S. & Jeong, C. G.(2012), *Corpus Linguistics: An Introduction*, Seoul: Hanguk Munhwasa
- 김광해(1981), {-의}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G. H.(1981), *Meaning of (-u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정남(2003),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57-274쪽. Kim, J. N.(2003),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Korean Pronoun ‘우리’*, *Korean Semantics* 13, pp. 257-274.
- 김창섭(2008), 문어와 구어에서의 조사 ‘의’의 문법,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79-115쪽. Kim, C. S.(2008), *The Grammar of genitive marker ui in Written and Spoken Korean*, *The Chin-Tan Society* 106, pp. 79-115.
- 김혜진(2022), 중 ·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연속구성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H. J.(2022), *Study on Teach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 About Particle Combination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노양진 · 나익주 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1980)』,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김서형 · 이혜숙 · Miny Kim 역(2012), 『언어 교수 문법에서 문법 사용하기로 (Larsen-Freeman, D., *Teaching language from grammar to grammaring*, 2004)』, 지식과 교양
- 목정수(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437-470쪽. Mok, J. S.(2007), *The Grammatical Status of the Particle ‘eui’ in Korean and its Semantic Func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123, pp. 437-470.
- 백미현(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인지 9-2, 담화-인지언어학회, 59-78쪽. Baek, M. H.(2002), *A Study on Korean Plural Senses*, *Discourse and Cognition* 9-2, pp. 59-78.
- 변정민(2008), 관형격 구성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

- 교육학회, 523-546쪽. Byun, J. M.(2008), A study on the types and properties of genitive constructions,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79, pp. 523-546.
- 윤재학(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7-2, 한국어언어정보학회, 1-30쪽.
Yoon, J. H.(2003), Singular Wuli ‘we’, *Language and Information* 7-2, pp. 1-30.
- 전영철(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한국어언어정보학회, 27-45쪽. Jun, Y. C.(2004), Plurality and Its Effect on Genericity and Definitenes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8-2, pp. 27-45.
- 전영철(2004),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적 특성들,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4, 한국어언어정보학회, 213-228쪽. Jun, Y. C.(2004), Hangugeo boksupyohyeon-ui uimironjeok teukseongdeul(Semantic Characteristics of Plural Expressions in Korean), *Hagye Haksul Daehoe Balpyo Nonmunjip (Proceedings of the Summer Academic Conference Presentations) 2004*, pp. 213-218.
- 전영철(2005), 한국어의 소위 특정성 표지들에 대하여, 언어 30-4, 한국어언어학회, 715-743쪽. Jun, Y. C.(2005), On So-called Specificity Marker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0-4, pp. 715-743.
- 정상희(2021), 현대 한국어 수 범주 연구 : 개체와 사건의 배분성, 집합성, 집단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Jeong, S. H.(2021), Number Category in Korean Language: Distributive, Collective and Group Reading of Individuals and Ev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한정환(2012), 조사 ‘의’와 특정성, 한민족문화연구 40, 한민족문화학회, 39-72쪽.
Han, J. H.(2012), Josa ‘euy’ and Specificity, *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 40, pp. 39-72.
-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Hong, S. M.(2002), *Gugeo Teuksujoosa Sinyeongu(A New Study on Special Particles in the Korean Language)*, Seoul: Book Publishing Yeongnak.
- 홍용철(2010), 한국어 명사 외곽 수식어들의 어순과 명사구 구조, 한국생성문법연구 20-2, 한국생성문법학회, 27-50쪽. Hong, Y. C.(2010), Peripheral Nominal Modifiers and Noun Phrase Structure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0-2, pp. 27-50.
- Donnellan, K. S.(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75, pp. 281-304.
- Enç, M.(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1, pp. 1-25.
- Heim, I. R.(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Partee, B. H.(1972), Opacity, coreference, and pronouns, *Synthese* 21, pp. 415-44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stdict.korean.go.kr>)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Language Information Sharing Center), 모두의 말뭉치, <https://kli.korean.go.kr/corpus/>(2025.03.06.)

김 혜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졸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11동

08826

전화번호: 02-880-7657/7658

전자우편: bud412@naver.com

투고일: 2025. 1. 31.

심사일: 2025. 2. 18.

게재 확정: 2025. 3. 5.

말뭉치 분석을 통한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양상 분석

-특정성, 개별성 의미의 반영을 중심으로-

김혜진(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의’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특성인 특정성과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말뭉치 자료로는 약 9만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N1의 N2’에서 ‘의’의 빈도는 특정성이 표현될 때 높아졌으며, N1이 복수의 개체일 경우에는 개별성을 나타냄으로써 특정성을 표현할 때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반면, N1이 속성으로 표현되거나 복수의 개체일 경우에는 집단적 의미로서 N2의 속성으로 쓰일 때 ‘의’의 결합 빈도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경향성에는 예외가 많아 ‘의’의 사용 비율을 함께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의’의 사용 양상을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의미적, 양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관형격조사(Genitive case marker), 의(ui), 말뭉치(Corpus), 특정성(Specificity), 개별성(Individuality)
